

# 전북지역 스포츠분야 창업기업 육성 속도낸다

###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낫소 업무협약 홍보·마케팅 지원 골프웨어 제작 스타트업 '벨런스윙'과 물품 유통계약도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가 스포츠분야 창업기업 육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20일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에 따르면 센터는 최근 (주)낫소와 전북지역의 스포츠분야 창업기업 육성 및 홍보·마케팅 협력을 위한 협약을 가졌다.

이번 협약식은 전북지역 스포츠 산업 활성화를 위한 상호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전북 창업지원사업 협력 추진, 창업기업 홍보·마케팅 공동지원, 기타 각 기관의 전문정보 및 기자재 이용 협력 등을 주요내용으로 앞으로 관련 창업 파트너로서 두 기관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또 낫소는 이날 전북센터의 대표적인 스포츠분야 스타트업인 '벨런스윙'과의 물품 유통계약 체결식도 함께 진행했다.

벨런스윙은 기능성 골프웨어를 제작하는 토종전북기업으로 2016년 효성전북 창업스타 5기 창업경진대회 우수상을 수상하면서 기업으로서의 첫발을 시작했다.

이후 전북센터와 전담기업인 효성의 적극적 지원으로 전북센터 입주 지원, 효성 원단 협업, 중국, 일본, 미국 해외 마케팅 지원 등으로 매출 400% 이상 성장을 하고 있는 대표 초기 스타트업이다.

최근 미국 PGA 9승 프로골퍼인 스투어트 에플비로부터 투자유치를 성공했으며, 3월부터는 미국의 킥스타터에 크라우드펀딩을 진행하면서, 전 세계의 골프시장에 도전장을 내밀 예정이다.

박광진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은 "전북지역의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파트너와의 협업을 통해 지역 창업기업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겠다"고 밝혔다.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는 지난 18일 전북센터 2층 교육장에서 낫소와 스포츠분야 창업기업 육성 및 홍보·마케팅 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전북도 제공>

북지역의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파트너와의 협업을 통해 지역 창업기업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겠다"고 밝혔다. /전주=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 보성군, '보성 의병사' 발간

### 인물·사건·선양자료 등 총 3권 구성...의병 777명 발굴

보성군이 '보성 의병사'를 발간했다. 2017년 2월 작업을 시작한 지 2년만이다. '보성 의병사' (사진)는 총 3권으로 1권 인물자료, 2권 사건자료, 3권 선양자료로 구성됐다.

이번 의병사 발간의 고증 작업은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호남학연구소)에서 맡았다.

임진·정유재란, 정묘·병자호란, 한말 일제 강점기 의병과 독립유공 관련 인물까지 면밀한 조사 끝에 총 777명의 의병을 발굴했다.

보성군은 임계영 전라좌도 의병장 기념관 건립을 비롯해 이순신 장군과 관련된 방진관, 열선루 등의 복원사업, 의병을 소재로 한 연재소설, 연극, 뮤지컬 등 다



양한 형태의 역사 선양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2020년 의병기념관 건립을 위해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

## 100년 역사 고흥읍교회·소록도 중앙교회 '한국기독교 역사 사적지' 지정

고흥군은 고흥읍교회와 소록도교회가 대한예수교장로회 역사위원회로부터 '한국기독교 역사 사적지'로 지정됐다고 20일 밝혔다.

역사 사적지 11호로 선정된 고흥읍교회는 1905년 미국 의료선교사 오원의 전도로 시작해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갖고 있다.

고흥 최초의 교회로 기독교 복음 전파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역사 사적지 12호로 선정된 소록도 중앙교회 등 5개 교회는 97년간 한센병 환우들의 고통과 애환을 함께 해왔다.

고흥군 관계자는 "역사를 잇는 민족은 미래가 없으며, 기록은 찬란한 문명을 고스란히 전해주는 역사의 타임머신"이라며 "영광스러운 순간을 기억하고 영구히 보존해 후세에게 고흥의 역사적 가치를 위대한 유산으로 물려주자"고 말했다.

## 전주시, 고농도 미세먼지 재난 규정 4년간 340억원 투입 저감대책 추진

전주시는 고농도 미세먼지를 한파와 폭염 같은 재난으로 규정하고 미세먼지 농도를 낮출 수 있는 강력한 저감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올해부터 4년간 매년 85억원씩 총 340억원을 투자해 평상시에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를 시행하고 사업장·공사장 운영시간을 단축키로 했다.

또 대중교통 운영시간 연장 및 증차, 대기 배출사업장 특별지도점검, 자동차 배출가스 특별단속, 자동차 공회전 집중단속, 도로 청소차 운영, 영농폐기물 및 쓰레기 불법소각 감시 등도 병행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미세먼지 측정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미세먼지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을 강화하는 등 미세먼지 대응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배출특성을 고려한 분야별 미세먼지 발생원 감축을 위해 비산먼지, 산업, 수송에너지에 대해 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시민들이 스스로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노약자 어린이 등 건강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부서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미세먼지의 위해성과 시민 행동요령에 대한 교육과 홍보도 확대하기로 했다.

미세먼지 회피 승강장 조성(8곳), 어린이 통학 차량 LPG 차량 전환(80대), 미세먼지 정보 알림 시스템 확충(대형전광판, 교통전광판 연계) 등도 추진한다. /전주=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 서부산림청, 15개 목재제품 품질·안전성 검사

### 5개 품질단속반 운영...생산·수입·유통업체 대상

서부산림청은 목재제품의 품질 향상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전남·북, 경남의 목재제품 생산업체 및 수입·유통업체에 대한 계도 및 단속을 벌인다.

이를 위해 5개조 20명으로 편성된 품질단속반은 집성재·목질비대재·성형목판 등을 포함한 총 15개 제품에 대한 점검을 벌인다.

특히 규격·품질이 고시된 제재목에 대해서는 집중 계도하고 사전 품질 검사 및 표시 여부 등을 점검하며, 단속 중 채취한 목재제품의 시료는 전문 검사기관에 의뢰해 규격·품질을 확인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규격·품질 기준에 미치지 못한 불법·불량 제품에 대해서는 전량 반송 및 폐기 처분할 방침이다.

규격·품질검사를 받지 않거나 기준에 미치지 않은 제품을 판매·유통하다 단속에 적발되면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서부산림청 관계자는 "목재제품을 취급하는 업체 모두가 스스로 규격과 품질 기준을 인지하고 적합한 제품만을 생산·유통해달라"고 당부했다.

## 정읍동학마라톤대회 24일 개최

### 125주년 동학농민혁명기념...4000여명 출전

정읍시는 24일 제125주년 동학농민혁명기념 정읍동학마라톤대회를 개최한다. 정읍시체육회와 정읍시육상연맹이 주최·주관하는 '제125주년 동학농민혁명기념 정읍동학마라톤대회'는 정읍시 종합경기장 일원에서 열린다.

대회는 풀·하프 코스, 5km, 10km 등 4개 종목이며, 10개 세부종목으로 진행된다. 풀코스는 전국 달리기들에게 환상 코스로 알려진 종합경기장-내장산IC-내장저수지-내장사-종합경기장 구간에서 펼쳐진다.

이번 대회는 지난 19일 황토현 전승일인 5월 11일이 동학농민혁명 법정 기념일로 확정된 이후 처음 열리는 대규모 행사여서

전국적인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올해도 두 번째를 맞는 대회에는 지난해 3600여명보다 늘어난 4015명이 참가 신청을 했다.

한편 시는 대회와 관련, 시민 편의와 원활한 대회 운영을 위해 구간별 교통 통제를 실시한다. 통제시간은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다.

통제되는 곳은 샘골다리사거리에서 송죽삼거리에 이르는 천변로, 송죽삼거리에서 내장터미널까지의 내장호반로, 내장터미널에서부터 내장산 우회정, 송죽삼거리에서 첨단과학산업단지 신성교차로, 신월동과 교과동 구간 등이다.

## 순창서 전국유소년야구대회

### 23일 개막 140개팀 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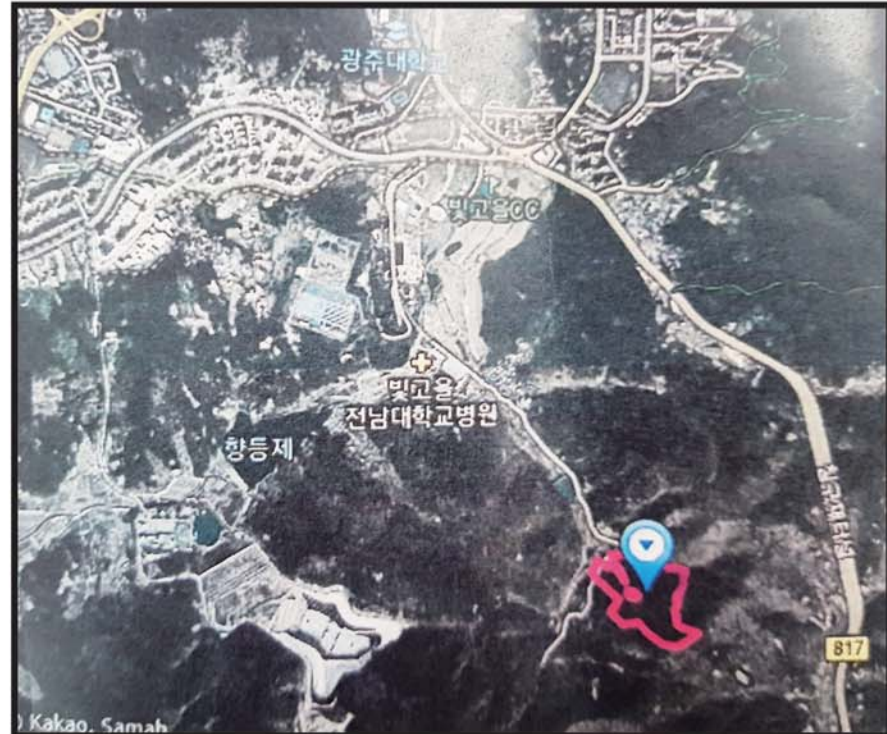
국내 유소년야구 개막대회인 제4회 순창군수배 전국유소년야구대회가 23일부터 6일간 순창군 생활체육운동장 등에서 열린다. 대회는 대한유소년야구연맹이 주관하고 전라북도, 순창군 등이 후원한다.

대회에는 전국의 140개팀이 참가한다. 경기는 초등학교 3학년 이하의 새싹리그, 4~5학년 꿈나무리그, 초등 6학년~중 1학년 유소년리그, 중 2~고 3학년 주니어리그로 나뉘 치른다.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에노방** Naver 공식 블로그에서 구독하세요

# 덕남동 임야, 투자가치 좋습니다.

- 광주광역시 남구 덕남동 산, 공유지분 300평
- 전체 22600평중 일부 매매
- 대학교수, 건설회사, 세무사, 간호사도 매입함
- 도시지역, 자연녹지, 그린벨트
- 장/단기 투자대비 큰수익 가능
- 매매 - 7500만원 (일시불 조정가)



문의. 010-6834-7400